

부호장공파종회(副戶長公派宗會) 정기총회

부호장공파종회(회장 권병균)는 2월 8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종원(宗員)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맹추 위에도 불구하고 권인호, 권희택 역대 파종회장과 권병규 일로 그리고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권중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묘소 망배, 상유례를 마치고

권병균 파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종원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하고 “재임기간 중 700년만에 처음으로 파종(派種)님 제사를 모시게 된 것은 종원 여러분의 한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숭조사상의 덕분이며 그 기쁜 날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등 지난해는 값진 한 해였다”고 회고하고 “옛날 문중에 가만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였지만 지금은 특히 젊은 종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숭조사상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서 전자 회의록 낭독, 감사 및 결산보고, 예산 승인 후 임원선임이 있었는데 전형위원 7명의 합의 하에 제5대 신입회장에 권오정(權五貞), 부회장 영건(寧健), 오중(五重), 감사에 무정(武正), 헌종(憲宗),

운영위원회 혁록, 기택, 오엽, 오영, 오철, 태욱, 대정, 정수, 정준, 중대 등 10명을 각각 선임하고 신입회장이 오균(五均)을 사무국장으로 지명하였다.

오정 신입회장은 인사말에서 “역대 회장들의 고견을 물론, 종원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도 귀담아 듣겠다”며 “앞으로 부녀회 활성화, 시조님 제사에 필요한 책임자 선출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안동농림고등학교(현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안동시 옥동, 담북, 대흥, 법상동에서 20여 년간 동장으로 근무하다 사무관으로 정년퇴직하였다. 그는 공무원 퇴직자 모임인 서예반에 입회, 그 동안 전국에서 열리는 서예전에 25회 출품하여 금상 및 우수상을 받았으며 현재 서예작가이며 안동행정동우회 서예반 회장직을 맡고



일원정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원내 좌 병균 전회장, 우 오정 신입회장

있었다. 이날 병균 파종회장, 주연 부회장, 오중, 기택, 오윤 등 5명이 성금 5만~20만 원을 찬조했다. 회기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식당에서 특별한 주머니 뷔페로 일원정에서 점심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타월 한 짝씩 선물로 나눠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高麗朝 權正平 墓誌銘 關聯 懇談會 開催

고려조 권정평 묘지명 묘지명 관련 간담회 개최



정조공파종회 회관에서 권정평묘지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월 10일 오후 2시 안동시 동부동 정조공파종회관 회의실에서 고려 의종조 태자소참사(太子少詹事) 권정평(權正平) 묘지명(墓誌銘) 발견에 관련된 인사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 권영록 대종원 태사모 원임, 권오훈 전 능동춘추 주필, 권정찬 전래위원장, 권기갑 대종원 전래위원회 부위원장, 권인택 대종원 부총재 겸 정조공파종회장, 권기만, 권오탁, 권기룡 전 정조공파 회장을, 권순택 정조공파 주선, 권영일 정조공파 대구 종친회장, 정조공파종회 임원 등 모두 30여명이 참석했다.

권혁조 총무는 묘지명이 처음 나왔던 지난 2012년부터 금년 1월까지 아홉 차례 걸쳐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가졌던 내용을 설명하면서 경과보고를 하였다.

권인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훼손이 되지 않은 원형 묘지명이 발견되므로 후손의 한사람으로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다며 인사를 했다. 권계동 상임부총재는 축사에서 발견 된 묘지명을 근거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정평(正平) 선조에 대하여 새로



한국토지주택 박물관에 보관된 권정평묘지명

운 사실을 많이 찾아내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하였다.

이날 초청 간담회에서 권오훈 전 능동춘추 주필은 묘지명이 처음 나왔던 2012년 5월부터 지금까지의 출토경위와 진척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묘지명에 기록되어 있는 명문(銘文)으로 보아 훼손이 전연 되지 않았고 사료적 가치가 있어서 현재 박물관 측이 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전래 부위원장인 권기갑 연구위원은 발견된 묘지명은 안동권씨의 보물임에 틀림이 없다고 말하고 중국의 예를 들면서 중국에는 비림(碑林)이 있는데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에는 성씨와 관계없이 이 고장의 유명한 인물들의 비(碑)를 세워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권인택 정조공파종회장은 권정평의 호 무루(無累)를 따서 무루정(無累亭)을 짓고 비를 세워 후손에 선양(宣揚)하겠다고 밝히고 무려 1시간에 걸친 진지한 토의 끝에 간단한 다과회를 마치고 폐회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토지주택박물관

〈보도부장 권영건〉

石洲公宗中 定期總會 開催

새會長에 權五琮氏 選出



석주공종회는 서울 연목동 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입회장에 권오중씨를 선출하였다.

지난 2월 22일 10시 30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소재한 석주빌딩 농부보쌈식당에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주공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오철 사무국장이 성원보고와 개최한 후 국민의례와 시조태사공님과 석주공님께

망배에 이어 권오진회장의 설날 연휴가 끝나는 날이라 교통이 어려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가 있었다.

권오철사무국장이 석주공종회의 경과보고, 2014년도 결산보고, 2015년도 예산을 보

고하고 승인되었으며 금년부터 경조금을 50만원으로 인상기로 하였다.

이어서, 석주장학회 권경일상임이사가 석주장학회의 업무보고와 2014년도 결산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을 보고하며 승인되었다. 특히, 2014년부터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50% 인상하여 100%지급한 것은 큰 성과라고 박수로 성원하여 주었고, 2015년도에도 인상된 장학금이 100% 지급될 수 있도록 석주공종회에서 2,000만원을 석주장학회에 기부기로 결의하였다.

회장 및 이사의 임기가 오늘 만료되어 임원개선건을 상정하여 토의한 후 아래와 같이 새로 선임하였다.

회장은 석주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권오중(權五琮)씨로 석주공종회에서 다년간 부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었고, 안동권씨 대종원의 종무위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인 위험물의 운송, 하역 등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현재 가르치고 있으며, 위험물 관리회사(주)캠앤디지에 대표로 있다.

회장 권오중, 부회장 권경주, 부회장 권오익, 권경석이사, 권오임이사, 권오윤이사, 권경순이사, 권경수이사, 권오승이사, 권純徹이사, 권純喆이사, 권순택이사, 권순석이사, 권경통감사, 권순정감사가 선임되었다.

〈권경일 기자〉

검교공파서울종친회 정기총회

검교공파서울종친회(회장권오운)는 2015.2.24.18:00~20:00 서울산들해송파점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정기총회가 열려 권영기총무부장 사회로 개회선언, 권오운회장의 인사, 2014년도결산보고, 권영태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회원들의 동의로 승인되었으며 2015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인 3월 포스코 방문준

비 및 분회 발전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총회를 마치고 이철삼발전식에 권태광부회장의 건배사 반주로 새해의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과 건강을 기원하는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정기총회를 성료하였다.

〈권영기총무부장〉



雲谷書院誌

(운곡서원지)

〈지난호에 이어〉

2. 운곡서원 연혁

이 날의 향례에는 경주부윤(慶州府尹)이 악공(樂工)을 보내 제례악을 연주케 하고 청하현감(淸河縣監) 채민공(蔡敏恭)과 목관(牧官) 권임형(權任衡)은 악공 품삯을 보내와 예도와 의식이 상대히 거행되었다. 당대의 명필인 관서 표암(豹巖) 강세황(姜世晃)이 묘호(廟號)와 영보당 및 남북재(南北齋)의 이름과 누암(樓峯)의 여러 판액(板額) 글자를 써서 보냈다. 옥산서원(玉山書院)에서는 어포(魚浦)와 장지(壯紙)와 황축(黃軸)과 돈을 보내오고 세덕사(世德祠)에서도 어포·장지·백지·황축·돈을 보내왔다. 동강서원(東江書院)에서도 돈을 보내오고 강정(江亭)의 장동필(蔣東弼) 문중에서도 조전(助錢)을 보내왔다. 사암(士巖)의 최경(崔敬)이 돈을, 무침당(無添堂)에서 백지와 황축·돈을, 번계(蕃溪)의 최주공(崔柱公)이 문중 돈을, 향단(香壇)의 이정음(李靜凝)이 문중 돈을 보내왔다. 기계(杞溪)의 이상일(李尙逸), 이양우(李襄雨)와 육통(育通)의 이상발(李祥發)이 돈을 보내오고 영천(永川)의 안비중(安非重), 이우룡(李維龍)이 문중전을 보내고 양동(良洞)의 손씨(孫氏) 문중에서 돈을 보내왔는데 손현구(孫玄九)는 사사로이 계

돈을 보내왔다. 단구(丹丘)의 옥구이씨(沃溝李氏) 문중에서 돈을 보내고 기계(杞溪)의 서씨(徐氏) 문중에서도 돈을 보내왔으며 영해(寧海) 문중에서도 돈을 보내오고 모평(毛坪)의 조민보(曹敏輔)도 문중 돈을 보내왔다. 언양(彦湯)의 권학중(權學中)이 돈을, 평해(平海) 문중에서도 돈을 보내왔으며 예천의 신당(神堂)에서는 돈과 소 한 마리를, 순흥(順興)의 석교(石橋)에서도 돈과 소 한 마리를 보내오고 망봉(望峯)의 황보씨(皇甫氏) 문중에서도 돈을 각기 보내왔다. 그리고 권종원(權宗源)은 서원의 오른쪽 백호산(白虎山)에서 직소(直所)가 있는 서쪽 줄기를 도덕곡(道德谷)에 이르기까지 서원의 임야로 헌납하였다. 이 날의 의논에서 산장(山長)을 권상직(權相績)으로 하고 권구환(權龜煥)을 유사(有司)로 하였다.

이때 뒤인 정조 11년 정미년(1787) 3월에는 임기가 지난 산장(山長)의 후임을 권동준(權東準)으로 하고 유사를 권종렴(權宗濂)으로 하였다.

순흥(順興)의 금성단(錦城壇) 임각수(鴨脚樹)가지를 思祖巖에 심다.

정조 13년 기유년(1789) 3월에는 산장을 권익수(權翼鏞)로 하고 유사를 권달환(權達煥)으로 하였다. 이 해 5월에 죽림공(竹

林公)의 12대손 권종락(權宗洛)이 죽림공의 신원(伸冤)을 호소하여 옛 작위를 회복케 하고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흥(順興)의 금성단(錦城壇)에 있는 압각수(鴨脚樹) 가지를 도끼자루 길이만큼 잘라다 6월이 이곳에 도착하여 용추(龍湫) 위의 사조암(思祖巖) 언덕에 심었는데 이것이 죽지 않고 종생(叢生)하였다. 동년 9월 4일에는 죽림공이 복작(復爵)된 일을 고유(告由)하였다. 이 은행나무는 그 후로 거목으로 성장하여 현재 운곡서원의 명목로서 임술년(1982) 10월 29일자로 경주시 보호수(保護樹)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사연을 적은 ‘압각수기(鴨脚樹記)’가 유명하다. 이 기문은 이것을 삼은 지 2년 뒤인 정조 15년 신해년(1791)에 진사 윤기(尹愷)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서울의 성균관(成均館)에서 지어 보낸 것인데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영남 순흥(順興) 고을의 객사(客舍) 곁에 옛날부터 압각수(鴨脚樹)가 그 가지가 둘레를 넓히며 뻗어 북으로 죽계(竹溪)를 건너 명륜당(明倫堂)을 덮으니 그 크고도 기이한 것이 더불어 짝할 자가 없었다. 계유년(1453) 연간(年間)에 홀연(忽然)히 저절로 시드니 고장 사람이 두려워하여 점을 쳤는데 점괘가 나오기를 ‘압각수가 다시 살면 순흥 고을이 회복될 것이라’ 하므로 사람들이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다.

(다음호에 계속)

祝 發 展

第27會 安東權氏全國靑壯年體典

청주청장년회가 주관하는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청주청장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종원 총재 권정달 / 전국청장년협의회회장 권계주

제27회전국체전개최에 즈음하여

청주청장년회장 권광택

안동권씨 청주청장년회회장 권광택입니다. 권문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청장년 전국체육대회가 금년 4월 26일(일) 개최됩니다. 본 대회는 지난해 대전(뿌리공원)대회에 이어 청풍명월의 고장-청주(청원공설운동장)에서 그 대대원을 펼치게 됩니다.

면면을 이어온 이 축제는 제27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만 축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장으로서 구심체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 대회를 이끌어 주시는 대종원 권정달 총재님과 임원 및 파종회장님, 그리고 초대 권영상회장을 비롯한 역대회장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행사를 주관하는 청주청장년회는 2008년 3월 1일 종친회총회에서 당시 권영주총친회장님의 제안으로, 청장년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가 가시화 되어 그해 10월 경 모임을 갖고 부족한 제가 초대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 이후 영천 및 광주대회 참가를 계기로 영주대회에서 청주에서 본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장년회원과 종친 어른들의 많은 격정과 반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종친들이 화합하고 소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현재 청장년회기 활발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

고 있습니다. 여기에 권기택 종친회장님을 중심으로 축전어르신들께서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로 힘을 모아주시고 있습니다.

청주의 자랑 몇가지만 하겠습니.

첫째는 지지(백운화상 초록불초 지지 심체오절)입니다. 고려 우왕3년(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찍어낸 책으로,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던 독일구텐베르크의 42형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서 나온 금속활자 인쇄본임이 공인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도 되어있는 청주지지는 세계인쇄문화의 요람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상당산성입니다. 둘레가 4.2㎞에 이르는 삼국시대 토성입니다. 토성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증축되었고 현재의 석축은 조선 숙종조에 개축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원형이 잘 남아있는 조선중후기의 대표적인 산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주가로수길 입니다. 청주의 관문인 진일로 가로수 길은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북대동, 산업단지, 육거리까지 5.89㎞에 걸쳐 조성된 플라타너스 터널로서 싱그러움과 청아함을 듬뿍 안겨주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에 1천5백여 그루가 4월중대로, 도열-4계절마다 맛이 다른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심천입니다. 청주의 젓줄 무심천은 청주를 동(흥덕구, 서원구)과 서(상당구, 청원구)로 나누며 남에서 북으로 흐



르고 있습니다. 남성면 추정리에서 발원하여 까치내(미호천)에 이르는 저변급 하천으로 물줄기가 80여리에 이릅니다. 물줄기를 따라

양옆으로 남석교를 비롯, 용화사 석불굴, 정복토성의 중요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암산, 용두사지 철당간과 성안길, 육거리시장, 중앙공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회가 개최되는 청주는 1946년 6월 1일 분리되었던 청주, 청원이 2012년 6월 통합이 확정되어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로 출범한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세종시 관문 공항과 KTX-오송분기점,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전국을 하루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관심으로 성원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2개월 정도 남은 기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모든 종친들에게 대회를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멋진 축제와 풍요로운 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7회 전국체전 준비위원장 권영배, 사무국장 권혁만 등 거족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權光澤회장 약력
59세 추밀공파 35세 총재대,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졸업, 국제 라이온스협회 356-D지구총재, 충북 새마을회장, 행복충북운동추진협의회 의장, 제8대 도의원, (사)미래도시 연구원 부원장, 한희개발(주),옥산(아스콘주),옥산레미콘(주) 회장, 안동권씨대종원 부총재